

11/3/19

설교 제목: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롯 유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마가복음 14 장 10-21 절

- (막 14:10)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 (막 14:11)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 (막 14:12)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 (막 14:13)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절관주** 마 26:18, 눅 22:8
- (막 14:14)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절관주** 눅 22:11, 출 12:6, 레 23:5
- (막 14:15)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절관주** 행 1:13
- (막 14: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 (막 14:17) ○저물매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 **절관주** 마 26:20, 눅 22:14
- (막 14:18)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절관주** 요 13:21
- (막 14:19)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절관주** 마 26:22, 눅 22:23
- (막 14:20)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 (막 14:21)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목격한지라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가 오면 자신들이 고위직을 한자리씩 차지하는 것은 따는 당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줄을 잘 섰다고 뿌듯해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돌아가는 일이 수상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준비는 안하고 자꾸 당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앞날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계산이 빠르고 똑똑했던 가롯 유다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는 그럴바에야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길을 찾는 편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막 14:10)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 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막 14:11)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 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넘겨 주기로 딜을 했습니다.

당시 은 30냥은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잠언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잠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롯 유다는 택함을 받은 사도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목격한 목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각자의 속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복잡했지만 몸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 잡는 날입니다.

그러나 갈릴리가 고향인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을 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이 때 방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리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막 14:12)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사실 유월절 양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마리아가 몸에 나드 향유를 부음으로써 이미 장례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장소를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해법을 주십니다.

(막 14:13)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통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막 14:14)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막 14:15)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막 14:16)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제자 두 명이 성내로 들어가 보니 정말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성경에 그 집 주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연고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 유월절에 최후의 만찬 장소로 사용하셨던 이 다락방은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는 120 문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결국 이 다락방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유로 이 집 외아들 마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울려 친분을 쌓게 되었고 마침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의 순종이 이런 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불현듯 누구를 도와 주어야겠다는 생각이거나, 교회에 헌금을 내야겠다는 생각, 선교지에 선교 헌금을 보내야겠다는 생각 등등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이니 즉각 순종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분위기 좋게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던 중, 예수님께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막 14:17) 저물매 그 열둘을 데리시고 가서

(막 14:18)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은 어찌피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이제와서 무엇때문에 이 말씀을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게 회개를 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दिल 했지만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막 14:19)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막 14:20)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하나같이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라고 묻습니다.

긴가 아닌가는 자기 자신이 잘 알터인데 아니면 그만이지 왜 근심들을 하며 그것을 예수님께 확인합니까?

이것은 제자들 모두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 속에 이런 비슷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혹시 자신들의 마음을 들켰는가 싶어서 다들 나는 절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들 속으로 뜨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요한복음 13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 13: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 13: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 13: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다른 제자들의 발과 함께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하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치미를 뚝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가룟 유다의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와같이 표현하십니다.

(막 14:21)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보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겐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배신에 분하기 보다는 모자란 자식이 그저 안타깝고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라고 낙인 찍히지는 않을텐데.....

뿐만 아니라 배신의 괴로움으로 자살로 생을 마치지는 않을텐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은 없었을 것을.....

어떤 이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롯 유다를 태어나지 않게 하실 일이지 왜 태어나게 해 놓고 이제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깊고 요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것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이 자유 의지에 따라 선택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께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결국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가롯 유다와 비슷한 짓거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두려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후에 그 사실을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 (마 26:31) 그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 (마 26:32)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 (마 26: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 (마 26: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 (마 26: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 (마 26: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 (마 26: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 (마 26: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 (마 26: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 (마 26: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 (마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 (마 26: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한 베드로는 아픈 상처를 안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하늘과 땅 만큼 다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없이 가롯 유다와 같은 자가 될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혹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은 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품 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덮임을 받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